



Russia

러시아 미술시장의 현장을 가다

러시아의 유일한 현대미술 아트페어 <아트 모스크바>(9. 19~23)가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러시아 미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구 컬렉터를 유혹하여 '소비에트 아트 붐'을 일으켰다. 경제 성장과 함께 등장한 러시아의 컬렉터들은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영향력이다. 아트미켓의 새로운 영토로 각광받은 러시아 미술과 미술시장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필자는 현지에서 러시아 미술과 미술시장의 오늘을 경제 정치 사회 분석 등 다각도로 조명한다. 글 | 엘레나 호롤리나 · 모스크바에 박사 객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트 모스크바(Art Moscow)>가 개최되었다. 16회를 맞은 <아트 모스크바>는 러시아에서 현대미술을 다루는 유일한 아트페어다. 13개국 35개의 갤러리 참여한 올해 <아트 모스크바>는 역사상 가장 관람하기 편하고 평화로운 페어였다. 페어의 작은 규모와 관람객이 무리지어 다니지 않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는 작품을 감상하고 신중히 구매를 고려하기에는 좋았지만, 아트페어 특유의 활기는 없었다. 이런 장면은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의 암울한 상황을 반영한다. 현재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은 침체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번 페어에서 누구도 큰 판매량을 기대하지 않았다. 310만 달러에 달한 판매량은 기대치보다 작지 않았지만, 작년보다 150만 달러 줄어든 액수다.

<아트 모스크바>는 현대미술을 일반 관객에게 소개하고 새로운 컬렉터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판매보다 교육과 토론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 "미술을 수집하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You do not need to be a millionaire to collect art)"라는 슬로건과 '아트페어' 대신 '현대미술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러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의심과 거부감을 극복해 판매를 자극하는 방법과 시장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도로 10개 이상의 공개 토론과 강연이 열렸다. 결국 <아트 모스크바>는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이 겪는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장소가 될 셈이다.

러시아 미술시장의 성장

올해 러시아 미술시장은 아트페어를 개최하기에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2012년 전반기에 러시아 현대미술을 다루는 주요 갤러리 3곳이 폐업을 선언했다. 역사가 가장 긴 갤러리 XL, 에이던(Aidan), 마랏&율리아 겔만(Marat&Yulia Guelman)은 러시아 현대미술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폐업 이유를 설명했다.

다. 갤러리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중지한다는 소식은 러시아 미술시장의 위기와 몰락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처럼 보였다.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은 4% 성장률을 보인 이후, 줄곧 정체 상태에 있는 것까지의 다름이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상이자 미술 수집가인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 부자가 많은 나라에서 현대미술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 부자들의 예술 취향은 글로벌 취향만을 쫓는다. 그들은 프란시스코 베이컨, 루시안 프로이트, 마크 로스코 등 물질적 가치가 대단한 작품의 판매 기록을 새로 세우는 데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 컬렉터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러시아 현대미술은 해외 컬렉터의 관심도 못 받는다. 그래서 세계 아트마켓 리스트에는 러시아 현대 작가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아트프라이스 400'의 현대미술 목록에는 러시아 현대 작가로 세뽕 파이비소비치(Semion Faibisovich)와 비노그라도프&두보사르스키(Vinogradov&Dubossar sky), 단 두 작가(팀)의 이름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컬렉터들이 부자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 현대미술 역시 번성할 리가 없다.

러시아에서 미술시장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면, 경기와 정치적인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가 러시아 미술의 유일한 후원자이자 컬렉터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예술가들은 국가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현대미술의 낮은 가격과 작품의 독특한 서구 컬렉터를 유혹하였고, 그들은 소비에트 공산 아트와 비공식적인 반체제적인 미술을 상관없이 대량으로 사들였다. 러시아 현대미술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이 때를 '소비에트 아트 붐(Soviet Art Boom)'이라고 한다. 당시 러시아 미술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유럽 미술시장과 매우 달랐다. 화가들은 직접 구매자를 찾아 거래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미술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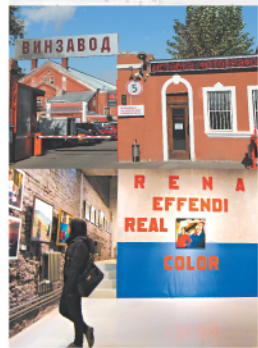
위 · 세르게이 카미프 (무제) 혼합재료 2012
아래 · AES+F (Angel-Demon) 혼합재료 2012

왼쪽 페이지
16회를 맞은 <아트 모스크바>의 프리뷰 전경.
올해의 슬로건은 "미술을 수집하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로 판매보다 교육과 토론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





위· 비노그라도프&두보사르스키 (유재)
캔버스에 유채 196x295cm 2010
아래 순서대로 · 흰 골라시(8)와 디사 주코비(우)
'세계 미술계 파워 100'인 중 4위까지 차지한 바 있는
주코비와 러시아 자선 재벌이자 세계적 컬렉터인 로빈
아브라모비치의 연인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미술센터인 '가라지'의 새로운 공간의 건축을
필 콜러에게 맡겼다. | 가라지와 함께 러시아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센터 '빈자보드'



한 관심은 시장의 혼란스러움과 가격정책의 부재라는 이유로 급감했다. 1989년 '최초 갤러리(The First Gallery)'라는 현대미술 갤러리가 문을 열면서, 러시아에 현대미술 시장을 자체적으로 형성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최초 갤러리'의 오픈은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의 탄생이라고 여겨진다.

1990년대 현대미술을 다루는 갤러리들이 잇따라 생겼고, 문명적인 현대미술 시장을 형성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모스크바에 있는 10개의 개인 갤러리들이 가장 진보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실험적인 현대미술 자체를 신진하고 지원하였다. 이때부터 컬렉터들이 형성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기업과 은행은 기꺼이 현대미술에 투자했고, 러시아 현대미술 발전과 미술 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3년에 열린 '아트-신화(Art-Mit)'라는 현대미술 아트페어와 아트페어 기간 동안 열린 소더비 경매는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에 현대미술 작품 판매량은 1년에 20%로 늘어났고, 1998년 경제 위기까지 미술 시장은 꾸준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곧 불어닥친 경제 불황은 시장을 다시 위기로 빠뜨렸다.

소수의 컬렉터, 골동품 시장에 집중

2000년대는 경제 상황이 점차 좋아지면서, 1998년 이후 침체되었던 미술시장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경제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러시아 현대미술 번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현대미술이 탈공업화 사회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현대미술을 적극 지원하였다. 유럽 큐레이터와 아티스트가 참여한 <모스크바비엔날레>가 국가의 후원을 받아 2005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모스크바비엔날레는 러시아 현대미술의 역사에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예전에 개인 추진력만으로만 존재한 현대미술이 국가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국가는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센터의 신권을 구축하는데 후원하였고, 2005년 현대미술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현대미술 시장제도를 설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미술 지원은 여러 기업에게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할 괜찮은 기회로 보였을 터. 2000년대 후반에 새로운 갤러리뿐만 아니라 개인 지원으로 현대미술 센터인 '빈자보드(Winzavod, 2007년 개관)', 현대문화센터인 '가라지(Garage, 2008년 개관)', 디자인센터 '아트 플레이(Art Play)' 등 현대미술을 진화하는 기관들이 문을 열었다. 현대미술 센터들에서 기획한 전시들을 통해서 러시아 사회는 국내의 현대미술을 경험하고, 미술이 단순한 컬렉션에 유체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견지할 것임을 알게 되면서 현대미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현대미술은 덜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명달아 현대미술 시장은 번성하는 시기를 맞았다. 부유한 컬렉터들은 현대미술 시장의 성장을 축찬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2005~7년 사이에 현대 미술작품 판매량은 1년 동안에 60~70%로 늘어났다. 올레그 쿨리크(Oleg Kulik), AES+F, 비노그라도프&두보사르스키의 작품 가격은 2년 만에 10배로 올라갔다.

러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필립 드 푸리는 2007년에 에릭 블라토프(Eric Bulatov)의 <소련공산당 만세>(1975)를

108만 파운드, 2008년에 일라이 카바코프(Ilya Kabakov)의 <작정빌레>(1982)를 290만 파운드, 2010년에 코마르&멜라미드(Komar& Melamid)의 <로스트로포비치의 다자에 술제니친 벨의 만남>(1972)을 65만 7천 파운드에 팔았다.

2008년 또 다른 경제 위기는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의 번성 시기를 종결시켰다. 러시아 미술시장은 몇 명의 컬렉터에 의지하였고, 그 몇 명이 시장을 떠나면서 시장은 무너지게 되었다. 세계 아트마켓이 2008년의 위기를 심공적으로 극복했다면, 러시아 미술 시장은 여태까지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한 갤러리의 대표에 따르면, 현대미술 컬렉터들이 별로 없어서 갤러리는 2008년 이전에 4만 달러에 판매한 작품을 2만 달러에도 팔지 못하고 있고, 판매량은 200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러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컬렉터들의 투자 지조 때문에 현대미술 시장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미술 구매력이 있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안정된 골동품 시장이 이를 확인해 준다. 러시아에서 모든 미술(중세 미술, 근대 회화, 공예 등)은 골동품 시장에서 다루어진다. 골동품 시장의 2010년 공식적인 판매량은 5억 2천 6백만 달러이고 2011년 4억 4천 2백만 달러였다. 골동품 아트페어는 1년에 두 번 개최되고 거의 매주 옥션이 열린다. 국내에 약 30개의 이른바 '살롱 갤러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한 갤러리의 1년 판매량은 평균 150만 달러이고, 매년 전시되는 15만 점의 미술품 중 반 이상이 팔린다. 미술을 꾸준히 수집하는 컬렉터의 수는 3천 명 정도이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만 20개 이상의 개인 옥션이 영업 중이며 새로운 옥션이 계속 생기고 있다. 2011년에만 10개의 새로운 옥션이 생겼다. 경매에 출품된 작품 중 50% 이상이 낙찰된다. 출품되는 작품들 중에서 19세기 아카데미적 성격이 강한 러시아 회화와 20세기 초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이 가장 인기가 많다. 경매된 미술 중 콘스탄틴 마코프스

키(Konstantin Makovsky), 마르크 샤갈, 다비드 부틀루크(David Buriuk), 콘스탄틴 코로빈(Konstantin Korovin)의 작품은 기록적 가격에 팔렸다. 이고르 그라바리(Igor Grabar)의 <밝은 식탁보 위 에네>(1921)는 지난 6월에 모스크바 옥션에서 3천 6백만 루블(약 120만 달러)에 낙찰되어 2012년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서구에서도 러시아 회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고 2011년, 2012년 경매마다 새로운 판매 기록이 세워졌다. 2011년 소더비가 주최한 러시아 미술 옥션에 출품된 작품들은 100% 낙찰되었고, 러시아 근대미술 가격은 22% 더 올라갔다.

현대미술이 팔리지 않은 이유?

근대미술은 매년 새로운 낙찰가 기록이 세워지는데 현대미술은 왜 팔리지 않는가? 이유는 많지만 그 중 몇 개에 주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인 상황이다.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은 경제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의지한다. 현재 러시아 정치적인 상황(즉, 후원의 정책)은 미술이 정치색을 띠게 한다. 러시아 현대미술은 예전부터 정치성을 강하게 띠는 경향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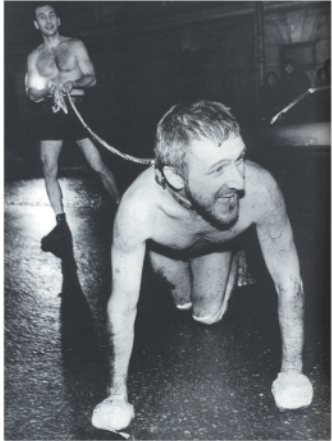


위· 콘스탄틴 마코프스킨 (에네의 여신 캔버스에 유채 205x139cm 1886, 2011년 러시아 미술시장의 경매 최고가인 약 100만 달러에 낙찰됐다.)
아래· 필리포 레온 (에네의 카메), 2011년 크리스티의 러시아 미술 옥션에 출품, 낙찰가 17,383,201달러와 낙찰률 200%를 기록했다.





위· 에릭 클라토프 <소련공산당 단체>
 칸바스에 유제 1975/2003~2005
 아래 왼쪽· 올레그 콜리크 <이집트 피포먼스>
 기쁨 사진 30.5x41cm 1994
 오른쪽· 보이냐 <Fuck for the heir Puppy Bear>
 피포먼스 2008, 러시아 예술집단인 보이냐-Voina,
 전쟁이라는 뜻)는 모스크바의 생물학 박물관에서
 집단 성행위 피포먼스를 벌였다.



었지만, 요즘 많은 작가는 푸틴의 정치에 항의를 표
 현하기 위해 반정부적인 행위를 선택한다. 이런 반
 정부 행위들은 현대미술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왜
 냐하면 보이냐(Voina) 그룹이나 푸시 라이엇(Pussy
 Riot) 그룹의 반정부 행위는 현대미술 자체에 대한
 국가 관리자들의 혐오감과 적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부는 보이냐 그룹이 샹트페테
 르부르크 다리에 그린 <FSB가 사로잡은 남근>
 (2010) 행위에 '이노베이션'을 수상하는 데 반대하
 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정부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
 다. 푸시 라이엇은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푸틴을 반
 대하는 노래를 부르는 피포먼스로 감옥에 가고 말
 았다. 푸시 라이엇이 받은 평결은 현대미술에 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반정부적인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미술 자체에 대한 정부의 의
 혹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에서 미술 작품을 구입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
 부분 정부 관료들이다. 그들 사이에 현대미술품 구
 입이 '백 브라더'들 화나게 하고 반정부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의식이 나타나자, 현대미술 시장
 은 손해를 입었다.

둘째, 가격정의 부재이다. 현대미술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은 가격 조절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작가나 갤러리는 작품의 가격을 책정한다. 그
 러나 현대미술 옥션이 없어서 갤러리에서 정해진
 가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누구도 작품의
 실제 가치를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구매자는 구매하
 고자 하는 작품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많은 구매자는 러시아 미술과 가격 차
 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다
 른 유럽 국가의 현대미술을 선호한다. 참고로 러시
 아 미술만 다루는 갤러리들과 달리, 러시아의 유럽
 현대미술을 함께 다루는 러시아 갤러리(Régina,
 Triumph, Frolov)는 상업적인 활동에 대해 불평하
 지 않는다.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 정책은(정확히 말
 하자면, 정적이 없는 것) 미술 작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촉진하지 못하였다.

셋째, 대중적인 관심의 부재이다. 러시아에서 현
 대미술은 지금도 소수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러시

아 사람들이 현대미술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는 약
 20년이 되었다. 현대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알게 됐
 지만, 이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서
 열린 러시아 현대미술 색션은 늘 비어 있다. 관람객
 의 대다수는 젊은 사람이고, 그들 중 대부분은 현대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러시아의
 대중 매체는 현대미술을 거의 소개하지 않는다.

현대미술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가라즈, 빈자
 보드의 국립현대미술센터로서의 노력은 중요하지
 만 여전히 러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현대미술을 알
 리기 위해서는 이를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전시
 를 준비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재
 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대중적 미술
 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 러
 시아 국내 기업은 미술 프로젝트를 지원하지만 소
 수의 관심인 현대미술을 후원하지 않는다. 기업들
 은 250만 명이 관람한 콘스탄틴 코로빈의 회고전
 과 관람객이 거의 찾가지 않는 아르세니 질랴예
 프(Arseniy Zhilyaev)의 전시 중 당연히 전자를 후
 원한다.

넷째, 러시아 현대미술의 비상품성이다. 현대미
 술이 팔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미술 자체에 있
 다. 미술 작품은 미술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다.
 바로 '상품성'은 러시아 현대미술의 문제점이고 현
 대미술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없는 주된 이유이다.
 러시아에는 현대미술 작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다. 또한 작가들 사이에 개념이 형식보다 우월하
 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성 즉 유행성이 떨어
 어지는 작품을 제작한다. 러시아 현대미술은 개념
 적으로 서구 미술보다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안타
 깝게도 서구 미술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실례 장식으로 사용되는 5천~1
 만 달러의 작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러시아 현대미술은 이를 공급하지 못한다.



결국, 공급의 문제

약 20년 전에 탄생한 러시아 현대미술 시장은 지금
 도 형성 중이라고 봐야 한다. 성공과 실패를 속단하
 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
 한다고 할 수도, 발전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판매량은 1년에 4%로 늘어나며 꾸준한 기록을 보여
 주고 있다. 러시아에서 현대미술의 공식적인 판매
 량은 1천만~1천 5백만 달러 사이에서 변동한다.
 (현재 아트마켓에서 판매되는 현대미술 중 러시아
 현대미술이 몇 %인지 알 수 없다). 현대미술 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컬렉터
 들이 생긴다는 낙관적인 견해에, 판매량의 10~
 15%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과연 앞으로 새로운 컬렉터들이 생길 가능성 있
 음까? 필자는 있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러시아 젊
 은 사람 중에 현대미술을 알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
 화되고 있고, 현대미술은 점차 유행의 흐름을 타고
 있다. 부모들의 재산을 물려받은 그들은 현대미술
 을 구매할 것이고 현대미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러시아 현대미술을 선택할
 지, 선배적인 당대의 컬렉터들처럼 맹목적으로 서
 구 현대미술을 선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공급의 문제이다. ●

위· 푸시 라이엇 <펍스기 드> 2012, 2012년 2월 21일,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성당 축이 없기
 불리디로 푸틴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연을 벌여 체포된다.
 아래· 린다 토모리시치 <쇼> 칸바스에 유제 100x100cm 2010

